

사진기사의 땅짓



복돼지가 주렁주렁 열렸네요

정해진 돼지해를 맞아 복을 안겨줄 돼지가 곳곳에 출몰합니다. 도로 옆 가로수 가지에도 주렁주렁 내걸렸네요. 크고 풍성한 황금 돼지띠 환하고 다니는 줄 알았는데, 절약 정신의 상징이던 빨간색 돼지 저금통도 보이네요. 요즘 황금 돼지 저금통이 인기죠. 없어서 못 팔 정도라고 하더군요. 올해가 '황금돼지해'라고 하니 돈 많이 벌겠다고 믿으며 하루 하루 살다보면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마음, 그것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동전 모으듯이 희망을 차근차근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황금 돼지해라고 하니 노력하지 않고 흑시나 하는 '행운'만을 바라고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로또같은 요행을 바라면 바랄수록 실망도 크다는 것 알아야겠죠. 아침, 그런데 가로수에 이렇게 돼지를 매달아놓으면 불법 아닌가요. 나무도 힘들고 매달린 돼지도 괴로울 것 같네요. 한 꺼번에 떨어지면 행인들도 다칠것 같고. 빨리 내려놓으시죠. /위직리기자 jrwi@kwangju.co.kr

오늘의 유머

이런 여자는 처음
여러 여자와 사고를 쳤지만 이런 여자는 처음이다. 눈물까지 흘리고 있다.
아저씨: 미치겠군, 아가씨. 이제 그만 정리하고 헤어지자나?
아가씨: 너무하세요 흑흑. 그럼 남은 이 흔적은 어떻게 하나요?
아저씨: 정 그러면 내가 돈을 준다니까.
아가씨: 이게 돈으로 해결되요? 처음이란 말이예요. 이 흔적은 분명 남을 거예요.
아저씨: 이봐, 요즘 기술이 좋아서 흔적도 없이 해준다니까.
아가씨: 흑흑. 아저씨 아까 빼라고 했을 때 빼면 이런 일 없잖아요. 그렇게 밀어 붙이면 어떻게 해요.
아저씨: 아니, 아가씨! 몇살인데 그래. 그렇게 경험 없으면 이런 곳에 왜 들어온거야?
아가씨: 저도 싫었는데 이런 곳에 와 봐야 한다고 친구가...
아저씨: 아, 미치겠네. 경찰이 다가오고 있었다. 당황할 수 밖에 없었다.
아저씨: 이것 봐, 경찰까지 부르려요? 이게 나만 잘 못 한건 줄 알아요. 아무리 처음이라도 그렇게, 너무하는 것 아니냐.
경찰: 살례합니다. 골목길에서 접촉사고 내놓고 이렇게 차 안빼고 싸우면 어떻게 합니까. 민원 들어왔잖아요.

도둑: 빈부 차이를 없애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는 사회 운동가입니다.
경찰: 너 꼭 혼자하는데 공범 없어?
도둑: 세상에 믿을 놈 없어야지.
경찰: 마누라도 도망갔다면서.
도둑: 그거야 또 훔쳐 오면 되죠.
경찰: 도둑은 휴가도 안가니?
도둑: 잡히는 날이 휴가죠.
경찰: 아들 학적부에 직업은 뭐라고 적니?
도둑: 귀동속 이동센터 운영.
경찰: 가장 슬펐던 일은?
도둑: 내가 훔친 시계를 마누라가 팔러 나갔다가 날치기 당했을 때.
경찰: 그때 마누라가 뭐라고 하던가.
도둑: 본전에 팔았다고 하던데요.
경찰: 자녀 교육은 어떻게 시키나.
도둑: 절대 들이지 않도록 현장을 다니면서 특별과의를 시키고 있죠.

▼엄마의 사랑



도둑의 명쾌한 답
경찰: 임마, 직업이 뭐야?

뉴스퀴즈 51·52회 김대길씨 1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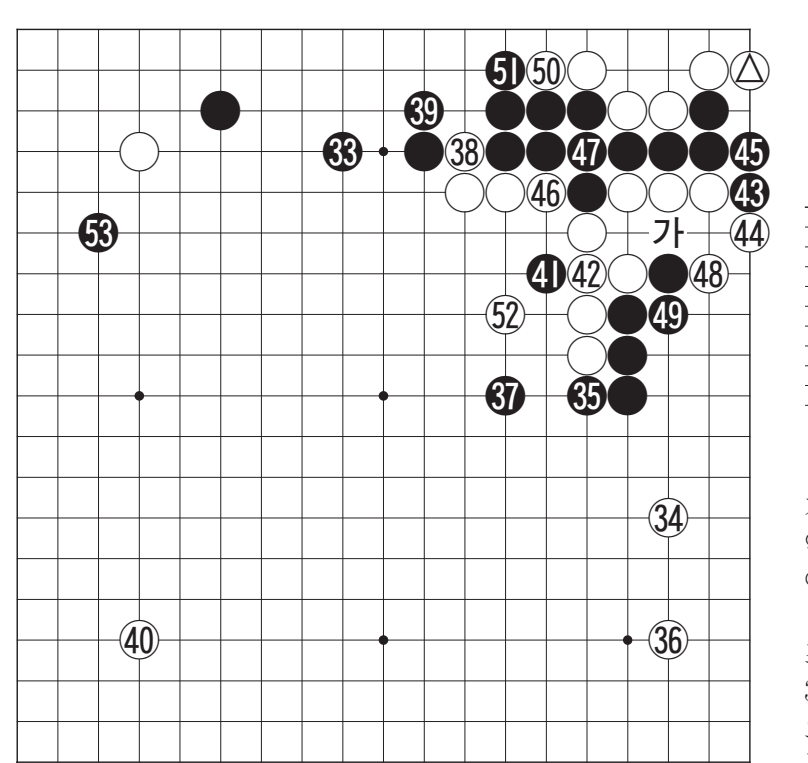
광주일보가 실시한 51·52회 뉴스퀴즈 추첨 결과, 김대길씨가 1등에 뽑혔습니다. 김씨는 26일 광주일보 편집국에서 열린 상품 추첨식에서 진공 청소기의 주인으로 당첨됐습니다. 51·52회 뉴스퀴즈에는 업서와 편지로 295명이 응모했으며,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정답자 2명을 뽑아 순서에 따라 등수를 정했습니다.
광주 신세계백화점 홍보 사원 박선영씨가 추첨을 했으며, 공정한 추첨을 위해 광주동부경찰서 금남지구 대 황경수 경사와 류현식 경장이 입회했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1등 ▲김대길·나주시 남대동
2등 ▲박학태·광주시 남구 월산동

바둑소식

디아마사타, 기성타이를 방어

아마사타 게이코 9단이 최근 일본에서 열린 제31기 일본 기성전 도전 7번기 제4국에서 도전자 고바야시 사토루 9단을 142수 만에 백 불계로 꺾고 타이틀을 방어했다.
아마사타 9단은 제30기 대회에서 하네나오키 9단을 4-0으로 완파, 타이틀을 때낸 뒤 이번 방어전에서 도내 4연승으로 정상을 지켰다.
반면 고바야시 9단은 도전 4번기 모두 200수를 넘기지 못하고 무너졌다.
아마사타 9단은 다음달 8일부터 조치훈 9단과 십단전 도전 5번기를 갖는다. 기성전 우승상금은 3억2천만원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조훈현의 속력행마 3보(33~53)
제35기 강왕전 5기 명인전 예선회전
조경호군은 약간 느리다고 생각될 정도로 두텁게 둔다. 흑이 우변을 움직인 수로는 백 ㉔의 곳을 두어 귀를 잡수하는 것이 가장 알기 쉬웠다. 그러나 굳이 우변을 움직인 것은 상대가 두터워지고 내가 넓어지는 것을 경계한 것이다.
흑 33으로 두텁게 상변을 지키자 조훈현 9단은 속력행마의 달인답게 34, 36으로 우귀를 점령한다. 이것으로 초반의 일함은 백의 속도가 돋보이는 형국이다.



뉴스퀴즈

53. 국내 4개 도시가 4대 국제 스포츠 박람회 이벤트 유치에 나섰습니다.
평창은 2014년 동계올림픽, 대구는 2011년 세계 육상선수권 대회, 인천은 2014년 아시안 게임 유치를 신청해 최근 평창과 대구에 대한 현지 실사가 진행됐습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도 오는 2012년 세계박람회 유치를 신청한 이 도시가 오는 4월9일부터 13일까지 현지 실사를 받습니다.
이 도시는 어디일까요.
① 여수 ② 광주 ③ 목포 ④ 순천

참어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용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인 삼성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인 무동파크호일 숙박권 1매를 보내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2월 27일(음 1월 10일 壬辰)

Table of daily horoscopes for various zodiac signs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with corresponding birth years and lucky/unlucky numbers.

Advertisement for DermaPlast skin care products, featuring a woman's face and contact information.

Table of language learning resources including English (Bottoms up!), Japanese (ももとふくらはぎが痛くなっちゃったんです), Chinese (天府之國), and Korean (한자 이야기).